직원의 안전에서 비롯되는 지속가능한 성장

휴젤㈜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

휴젤㈜은 인류에게 건강과 아름다움을 제공하여 행복과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를 위해 전제돼야 하는 것이 임직원의 안전과 행복, 휴젤㈜의 안전보건실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위해 안전보건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글 문예진 **사진** 김지원

안전보건 최우선의 컨트롤타워

휴젤㈜은 2001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R&D 투자와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HA 필러, 더마 코스메틱 등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6년 이후로 국내 톡신/필러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매출 상승률 30%, 매출액 대비 R&D 비율 10%를 유지하며 기업 성장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휴젤㈜의 성장 배경에는 안전보건경영이 있습니다. 휴젤㈜은 '안전보건 최우선'이라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아래 모든 생산 활동에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죠."

안전보건실 옥광석 이사는 기업 성장의 배경으로 '안전보건경영'을 꼽으며, 안전보건실의 소개를 이어갔다. 휴젤㈜의 안전보건실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22년 10월 1일 기존에 생산지원실 산하였던 안전보건팀이 별도의 안전보건실(EHS)로 승격되며 신설되었다. 이후 전담 인력을 충원하면서 법규상 규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안전관리책임자였던 권순우 부사장이 최고안전책임자로, 옥광석 이사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었다.

"안전보건실은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활동과 임직원 건강관리 제고, 환경관리와 소방안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휴젤㈜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으로서 거두공장, 신북공장, 연구소, 서울사무소 4개 사업장과 총 550여 명 임직원의 안전보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죠."

안전보건실의 역할을 설명한 조경아 보건관리자는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실이 사내 안전 의식 강화와 문화 확산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으며,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된 위험요인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휴젤㈜은 제약업 특성상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화학물질의 정확한 파악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숙제, 이에 맞춰 휴젤㈜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사전 자료조사를 통한 '사용 화학물질 파악'으로 시작되었다.

"저희 사업장은 수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합니다. 독성이 강한 식중독균을 포함해서 여러 유해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미량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많아서 자체적인 파악이 쉽지 않았죠. 대한산업보건협회에 화학물질 목록과 MSDS를 제출하였고, 사전 자료만으로도 1,000개가 넘는 화학물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주었습니다."

이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일에 걸친 현장방문이 실시되었다. 거두공장, 신북공장, 연구소 세 곳의 현장 순회를 통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등 화학물질 사용에 필요한 추가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부서별로 특별관리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특수검진 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6종을 추가로 분류했다.

"화학물질 세분화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더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인지, 그에 대한 관리요령은 뭐가 있는지 파악이 쉬워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평가 tool'을 모든 임직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위험성 인지가 임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안전보건실은 위험성평가 컨설팅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 스스로가 언제든지 본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학물질 파악을 통해 법적으로 진행하는 여러 사항에 대한 더욱 정확한 검토가 가능해지면서 기존에 일부 누락되었던 관리대상유해물질 관리요령을 완벽히 보완하여 게시하였다.

선제적 예방, 안전보건실 존재의 이유

"대한산업보건협회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저희 사업장에 꼭 필요한 화학물질 파악과 취급관리, 유해물질별 대응방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컨설팅 결과와 관련하여 자문할 일이 많았는데, 매번 상세히 답변을 주어서 사내 안전보건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컨설팅 진행과 더불어 휴젤㈜은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를 고민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 안전보고서만 작성하는 건 효과가 없다. 현장을 자주 찾는 안전보건실이 되어야 한다"를 강조하는 권순우 최고안전책임자의 지휘 아래 위험성평가 컨설팅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보완하며, 임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환경, 소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재해는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도 직원들도 교육 만족도가 매우 크죠. 올해 상반기에는 임직원 대상 안전보건 캐치프레이즈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접수된 105건 중 3개를 선정하여 캐치프레이 현수막을 사내 곳곳에 전시하였죠. 근골격계질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필라테스 프로그램도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안전보건실 류태근 팀장은 '선제적 예방'을 거듭 강조하며, 안전보건실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휴젤㈜의 안전보건실은 직원들의 부상 방지와 근무환경 개선, 이를 통한 행복한 삶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는 안전보건 문화 달성을 위해 안전보건실은 오늘도 현장으로 향한다.

Mini interview

"움직이는 안전보건실, 공부하는 안전보건실!"

휴젤㈜ **권순우** 최고안전책임자/부사장

Q. 안전보건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할수록 표시가 안 나는 게 안전보건실의 업무입니다. 무사고를 달성하면 안전보건실의 위험 요소 제거가 원인인지, 원래 사고 요인이 없던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런데 못한 건 표시가 잘 납니다. 작업자의 부상은 기업의 생산성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휴젤㈜의 안전보건실은 계속 움직입니다. 현장으로 가서 작업자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현장을 공부하며 실질적 방지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휴젤㈜의 안전보건 포부를 들려주세요.

첫째는 자체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약업 특성상 작업소별 수많은 위험물질과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에 맞는 각각의 안전 조치를 외부컨설팅으로 모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직원들이 제안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해가는 것입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실제 근무자들입니다.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가장 적합한 안전대책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